

## 존경하는 회원님께

추석 명절은 잘 보내셨는지요?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더욱 확연해졌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추석 때 나누셨던 가족의 사랑과 한가위 좋은 기운으로 힘 있는 가을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정책네트워크내일은 최근 몇 개월간 공정성장을 위한 공개정책좌담회에 이어 내일 자문교수진과 안철수 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공정성장론’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내부토론을 계속하여 왔습니다. 현재 공개 및 내부 토론의 결과를 중심으로 공정성장론의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습니다. ‘공정성장론’은 시장 질서를 바로 세우고, 기업들의 창의와 혁신을 추동하여 침체된 한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가 큼니다. 하루빨리 한국경제정책의 중심기조로 자리 잡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철수 의원이 제기한 야당의 본질적 혁신과제인 ‘넓은 진보청산’ ‘당 부패척결’ ‘새로운 인재영입’ 방안에 대해서도 정당의 다양한 혁신사례를 조사하고 전문가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부패척결방안’에 대해서는 지난 9월 20일 대선 출마 3주년을 기념한 자리에서 발표하여 언론의 집중적 관심과 호평을 받은 바 있습니다. 곧 ‘넓은 진보청산방안’에 대해서도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제대로 된 야당혁신은 야당의 발전과 정권교체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야당의 혁신은 여당의 혁신을 견인하고 한국정치 전반의 변화와 개혁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변화된 정치만이 국민의 삶을 바꾸는데 기여할 수 있기에 지금의 야당혁신 작업은 사명감을 갖고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회원님의 깊은 관심과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서신을 드린 이유는 이미 문자로 알려드린 바와 같이 10월 17일(토) 오후로 예정된 ‘회원의 밤’ 참석여부와 행사내용에 대한 의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회원의 밤 행사는 창립 2주년을 기념하여 지난 6월에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메르스사태 악화로 불가피하게 행사 당일 취소한 바 있습니다. 특히, 최

근 안철수 의원의 본격적인 정치활동 재개에 따라 정책네트워크내일에 대해 많은 언론이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이번 행사에 회원님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별도의 설문지에 참석여부를 통보하여주시면 행사준비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설문지 참조)

두 번째로는 회원모임 활성화와 관련한 의견을 더 수렴하고자 합니다.

지난번 설문조사에서 회원 간의 소통과 교류를 위한 회원모임의 필요성에 대해 회원님들 간의 공감대와 요청이 있어서 지난 7월과 8월초에 걸쳐 권역별로 정책네트워크내일 집행부(소장/부소장)와 회원님들 간의 첫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안철수 의원께서는 국정원 불법해킹의혹 조사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휴가철이 겹쳐 많은 분들이 참석하여 주시지 못한 지역도 있었으나 서울의 경우에는 퇴근 길 비가 오는 날씨였음에도 불구하고 50여 분이 넘는 회원님들이 참여하셔서 장시간 열띤 토론과 의견을 교환하기도 하였습니다. 회원 간담회 때 나왔던 의견들을 중심으로 몇 가지 설문을 더 드립니다. 귀찮다 생각하지 마시고 의견을 주시어 회원님들 간에, 그리고 정책네트워크내일과 회원님 간에 건강한 교류와 상시적인 소통의 장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정책네트워크 내일에서는 새정치에 대한 저변 확대와 내일의 활동 강화를 위해서 회원 배가활동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바쁘시겠지만 주변에 회원 가입 의사가 있으신 분들께 권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책네트워크내일이 회원님과 함께 국민 속에 자리 잡고 새정치의 중심에 서는데 든든한 발판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회원님의 성원과 애정에 거듭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더 많은 말씀은 회원의 밤 행사 때 뵙고 나누기를 기대하면서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7일 '회원의 밤' 행사에서 밝은 웃음으로 회원님과 뵙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 10.

정책네트워크내일 소장 정연호 드림

설문지

<정책네트워크내일 회원님 여론수렴을 위한 설문>

1. 회원님께서 이번 10월17일(토) 오후(5시) 개최 예정인 창립2주년 회원의 밤 행사에 참석 하시겠습니까?

- ① 참석 하겠다
- ② 참석이 어렵다
- ③ 그때 가봐야 안다

2. 회원님께서 10월17일(토) '회원의 밤' 행사 프로그램에 반드시 포함되었으면 하는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

3. 회원님께서 회원모임 관련해서 어떤 모임 형태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국 단일 모임이 바람직하다
- ② 권역별 회원모임이 바람직하다
- ③ 전국모임 권역별 모임이 둘 다 병행하는 것 좋다
- ④ 기타 ( )

4. 회원모임의 내용별 모임은 어떤 것이 좋겠습니까? (복수선택 가능)

- ① 등산 등 취미모임
- ② 분야별 회원정책포럼을 통한 정책 활동
- ③ 정치혁신과 새정치 활동지원을 위한 정치모임
- ④ 본인의 정치입문을 위한 예비정치활동 모임
- ⑤ 기타( )

5. 회원님 간의 취미모임이 결성된다면 어떤 분야에 참여를 원하십니까?

(복수기재 가능)

( )

6. 회원정책포럼이 결성된다면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거나 참여를 원하십니까?  
(복수기재 가능)

( )

7. 현재 회원님 간의 SNS 소통공간으로 네이버(naver)에 권역별 밴드모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역별 밴드모임을 전국모임으로 일원화 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전국모임으로 단일화하는 것이 좋다
- ② 권역별 모임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다
- ③ 둘 다 병행하는 것이 좋다
- ④ 기타 ( )

8. 최근 정책네트워크내일과 안철수의원이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공정성장론'과 '야당의 본질적 혁신과제(①낮은 진보청산, ②당 부패척결, ③새로운 인재영입)'에 대한 회원님의 평가나 수정 보완해야 할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

**응답 회원님 :** ( ) **연락처 :** ( )

※ 회원님의 성함과 연락처를 기재해 주시면 회원님의 견해를 이해하고 소통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기재 안 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 아울러 정책네트워크내일의 문은 활짝 열려있으며 회원님의 연구소 방문을 언제든지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내주실 곳 :**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49 성우빌딩 707호  
Tel : (02) 704-0518 Fax : (02) 704-0517  
E-mail : pnt@policynetwork.or.kr  
문 의 : 김경순 선임연구원 / 류진혁 연구원